

남북회담 깜짝등장 ‘강경화’…對北제재 조커역할 하나

<외교부 장관>

전문가에 듣는 회담 의의

국제사회 제재 관련 논의
북미회담 발판 마련 기대

비핵화·종전 가능성 낮아
남북간 협상 범위 벗어나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군사 긴장 완화와 외교부를 통한 북미 대화 돌파구 마련에 달릴 전망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19일 오전 정상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그간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 의제에 비핵화가 들어간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종전선언 가능성은 낮아

이번 회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표류한 가운데 열리는 만큼 종전선언 해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종전 선언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과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은 군사 긴장 완화와 민간 교류 등을 논의하고 북미 대화 분위기를 띠우는 선에서 회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교수는



이재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교수.

“비핵화나 종전 선언은 남북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며 “여전 조성은 가능할지 몰라도 남북 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지금까지 통일부 주관이던 남북 정상회담에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장관이 나선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강 장관의 이번 방북은 국제 사회 제재 관련해 (한국과 북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은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를 다루는 통일부가 주관하고, 외교부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남측 선발대가 16일 오후 선발대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북한 전종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권혁기 춘추관장, 선발대 단장인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 탁현민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군사 완화 조치는 당사자인 남북이 진전을 이끌 수 있다고 학계는 내다본다.

비(非)정치·경제적인 부분의 민간 교류 방안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맞물려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번 회담 날짜가 18일인 이유는 21일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현철 국민 대교양학부 교수는 “이번 회담 날짜는 평화를 지향하는 유엔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한반도의 노력을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평화를 지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부각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것이 학계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강경화 카드’를 꺼내든 한국 정부가 북미 회담 재개 또는 비핵화 협상 진전에 일정한 성과를 거둘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교수는 “회담 재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두 정상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은 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도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자국민에 면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일정 조정도 서로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UN ‘세계 평화의 날’에 맞춘 일정

경제인이 특별수행원에 포함돼 남북 경협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진전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 수행단에 SK와 삼성, LG와 현대차 등 4대 대기업 총수와 코레일 등 남북 협력사업 관련 기업 대표도 포함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경제구성’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이 취재준비를 하고 있다.

긴장감 도는 DDP 프레스센터

국내외 기자석 2671명… 취재 열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전 세계에 전할 프레스센터도 17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내외신 취재진들은 이날 새벽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지하 2층 알림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로 속속 모여들었고, 오전 10시 가량 되자 900여석에 달하는 기자석 대부분이 채워졌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측은 이날 오전 기준 내신 기자 2천224명, 외신 기자 447명 등 총 2천671명의 기자들이 DDP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현장 등록 기자들까지 추가하면 취재진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 때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 취재를 신청한 2천962명(현장 등록 포함)에 육박하는 수치다.

취재진이 대거 몰리면서 오전 한때 특정 통신사의 휴대전화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일도 있었다.

취재진은 자리에서 노트북 등 취재 장비를 점검했고, 일부 기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1·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자료

등을 살펴보며 기사작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발표하는 공식 브리핑을 시작하자 장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취재진은 정상회담 일정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임 위원장의 브리핑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외신 기자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오전 브리핑 사회를 맡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보도 측 선발대가 오늘 북측과 프레스센터 개설을 협의할 것”이라고 선발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DDP 프레스센터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회담과 관련해 한 차례 더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또, 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내신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열린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부터 매일 오전 9시에 정례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오늘 오후, 내일 오전 ‘두 차례’ 공식 회담

남북정상회담 일정은

비핵화 문제, 본론으로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과 19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다.

획대·단독 정상회담 등 통상의 성격이 아닌 두 정상이 첫 날부터 만나 비핵화, 전쟁 위협 제거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관계 실질적 발전 방안, 이산 가족 근원적 해결책 마련 등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선 2박3일 평양정상회담 일정의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교를 위한 시간을 가지길 가능성도 있다.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 DDP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께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해 환영행사와 오찬 후에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할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실장은 “북에선 최고지도자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 위원장이 (공항에서) 영접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북 이틀째인 19일 오전 두 번째 정상 회담을 마친 양 정상은 평양정상회담 합의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구체적 발전 방향 논의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 추진을 위한 북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공식일정

9월18일

오전 8시40분 문재인 대통령 및 수행원

서울 성남공항 통해 평양 출발

오전 10시

평양 순안공항 도착

공식 환영행사

오후

오찬 후 남북정상회담

경제 수행단 내각부총리 대담

특별 수행단 김영남 상임위원장 대담

회담종료 후 예술공연 관람

환영만찬

19일

오전 추가 남북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오후 옥류관에서 오찬

평양 주요시설 참관

환영만찬

20일

오전 오찬 없이 서울 출발



미대화 중재 촉진 ▲군사적 충돌 가능성 근원적 해소 및 실질적 평화정착 여건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에 평양행을 택한 문 대통령의 최대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두 정상이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둘째 날 정상회담은 오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임 실장은 “이번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면서 “이것이 이번 회담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고, 어떠한 낙관도 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중심 의제가 된 비핵화 문제는 실무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는 의제여서 이번에 만나는 두 정상간

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비핵화에 대해 진전된 어떤 합의가 나올지, 또 합의문에 담길지, 아니면 구두 발표가 될지 모든 부분이 지금은 ‘블랭크 (blank·여백)’라고 덧붙였다.

4대 그룹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경제단체장 등 경제인들도 이번 순방에 동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은 첫 날인 18일 오후 경제담당인 리용남 북한 국각부총리와 대담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날 오찬은 따로 잡지 않고 북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일부 수행원들과 조식을 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